

답기슈가



[해제]

<답기슈가>는 <기슈가> 연작에 해당되는 노래로 화전가류의 규방가사이다. 정확한 창작시기와 작자는 알 수 없으나 작품 중간에 나오는 ‘한현선생의 후예’라는 구절을 통해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의 후손이 창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노래는 시누이들이 지은 <기슈가>에 대한 답가로 올케가 지은 것이다. <기슈가>에서 시매(媿妹)들에 의해 조롱을 당했던 올케는 그에 대한 반론과 시매(媿妹)들에 대한 훈계를 노래로 풀어놓는다. 먼저 화자는 자신의 집안이 교남(嶠南)의 명족(名族)이요 국내(國內)의 대반(大班)이라며 시댁 못지않게 대단한 가문임을 밝힌다. 그리고는 시누이들의 부덕함을 비난하였으며 어른 공경과 자손 훈계, 치산과 방적, 법도에 맞는 행동거지 등에 대해 논하였다. 올케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시누이로서의 책무에 힘쓰라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교남의 명족인 자신의 집에 비해 보잘것없는 시누이들의 가문을 비웃었다. 대부분 경제적인 부를 기반으로 하거나, 한미한 벼슬, 몰락한 처지에 있어 보잘 것 없는 양반이라며 <기슈가>에서 시누이들이 자신을 무시한 것과 똑 같이 조롱하고 있다.

[원문]

즈고로 망흐느니 흐물며 세세집이
 스치히고 증구흐라 닉말을 피목혀
 일시라도 잇지마랴 야야동침아 우리여리
 형제언제도 함거만느 평일갓치 길길고
 만세만세 우리양친 강능갓치 슈고혀
 회홀에 그니올제 우리 다시모혀
 히히늑느 흐여보시

답기슈가 이와
 어와예중 식미돌아 이닉말숨 드러보소
 우리도 각각친정 변화코 흥상하기
 늑만니느 흐것마는 가소롭다 여즈몸이
 늑이계 미인고로 성당홀 데종숙질
 몇몇히을 그런느고 유시로 싱각흐면
 굿분심회 돌곳업디 발근달 힌구름은
 부모형데 싱각이요 천원기슈 흘은물은
 고향손천 의히흐다 다갓튼 여즈로서
 그딤들은 어이흐야 창찬의 구름보듯
 벽히에 물결갓치 이리보고 저리보와
 부모슬흐 넘노논양 쏘갓은디 느월년가
 오등속이 봉획인가 희희늑늑 흐는모양
 이닉마음 부럽도다 가소롭다 우리들도
 조흔바람 드러볼면 춘풍숨월 연즈갓치
 고택을 츠즈들어 부모동기 즐긴후의
 길일양신 가려닉여 삼삼오오 죽을지어

노금방초 승화시에 놀기로 노라보시
 가소강농 이분نيا ㉸㉸㉸㉸ 어인말고
 익미왕통 너른찬지 이디가 못술이오
 서울이 성도라도 허양유학 더욱실고
 웅찬니 허도라도 데놀타시 아일년가
 명퇴양반 조롱마소 명퇴라 허노고괴
 일흠으로 일우진디 ㉸㉸㉸㉸ 이아니며
 월니로 불죽시면 복히티슈 조흘시고㉸㉸
 명퇴양반 조후시고 한산양반 뉘실년고
 허허이말 가소롭다 신기스름 역지하야
 심술불척 군지닉가 손안디고 집노고야
 그퇴양반 닌여눗소 가사창 우읍도다
 아달조랑 흥일년가 선디세입 잔허기도
 아달이 웃듬이요 후서복록 연면키도
 아달이 제일이라
 그아모리 조롱흔들
 잇든조정 업술소야 그퇴들딧 미워도
 더욱늑는 일너보시 동기동기 닌강생이
 소중코도 유관허다 음전암전 이닉들이
 그뉘라셔 교퇴하라 믹스가 쳐연허니
 음잔허기 조연니요 찬성이 민참허니
 양잔허기 여스로서 음잔암잔 아니오면
 사람이 말명홀가 월녕덩녕 군디씨논
 시긔허는 말이로서 조롱홀말 잔허업서
 치산알들 조롱인가 야당쥬며 명월쥬논
 천허잘보 이아니며 여이쥬 연경쥬논
 갑실쥬들 구할소냐 빅슈이 무흔허니
 분흠허기 가소로셔 안이할가
 ㉸㉸ 일가지세 아니홀가 빅디지친 일너거던
 허물며 우르양반 한현산싱 후예로셔
 교놈이 명족이요 국닉예 디반니라
 진션들 안이홀가 지멸허니 ㉸㉸
 동향동서 지멸허의 동향도 다러거던
 허물며 동설소냐 닌고향이 동셔고향
 닌식딧이 동셔식딧 그장분이 엇더허며
 그친이 오죽홀가 여보소 데중시딧들아
 우리말슴 조세듯소 여조뭉이 되얏거던
 여조직분 홀지어다 어른들 공경허고

조손을 훈게하며 치손도 허련니와
 방작을 힘을시소 운용헌 흥동거지
 유순헌 심성을노 노림을 훈드히도
 약소헌 음식으로 쥬중이 ㅁㅁ식하고
 도용이 허는거시 무려헌 부원닉드르
 호남조의 썬을바다 공정니회 소회홀소
 바린지 잡저노코 무렁무렁 세룰직어
 시씩덤병 저미며셔 이도가조 저도가조
 우리마음 모라고셔 두번세번 간청허디
 춤예홀듯 업건만는 그럴망정 시인고로
 조흔다시 다라가니 상좌 안치고셔
 양간히 기중국의 되접은 춤살허나
 마음의 불가하여 귀미가 절노업대
 무디막디 니분니야 조리훈줄 모라고셔
 못홀일은 즐흔테로 면면면니 조랑허며
 찰석갓튼 우리마음 이리흔들 잘이흔들
 허노림 빅살하고 오늘갓치 노라보조
 디약디약 허것마는 어리석은 어나뉘가
 저그란줄 모라고셔 봉당지스 흥홀년가
 우리잔치 먹으려든 슈다한 조미농돌
 신히하고 도문홀제 앗잇고 청허거튼
 부쥬는 마니하고 제제히 도라오며
 소베가디 돛창스와 명티다갈 문어공디
 색색쥬 훈존으로 포식을 시기리라
 양반시익 되접말은 취중의 훈말인가
 단정으로 농담인가 그되들 본양반은
 조흔줄 알것만난 아디못헌 식딕양반
 각각으로 닐여노소 종반거창 허당딕아
 호가사가 양반인가 둥느히으니 학동딕아
 문필허면 양반인가 조궁조흔 신평딕아
 딜사정이 양반인가 솜씨조흔 관동딕아
 나락섬이 양반니가 식각시 신안딕아
 신낭조면 양반인가 타물식 오스딕아
 충청도난 다양반가 심정조흔 부산딕아
 손협사리 양반보조 알들허다 탕건허니
 양반닌가 예무세라 양반보소 양반결여
 못슬깃다 뷔워든든하면 무병허기 제일이요
 톱연축슈 허여시니 인정도 고맙도다

우리들 부요동이 이가스 괴록괴날
미저흔 식미들을 횡스롤 가라치이
시시로 펴여보면 유익ㅎ미 업솔소야
일후이 바러기난 괄목상딕 워니로쇠

회조가

어와 사람들아 세상이리 우읍도다
우리난 이련망정 부모림네 혈속으로
이곳이 칭장하며 념노라니 슬젼이오
모오드니 동결네라 동산의 쫓것기와
남익어 봉다기롤 유시로 칭각하니
어제갓치 역역ㅎ다 그딕로 불죽시면
이딕안 엽편딕 숙모님딕 부겅너라

[현대역]

자고로 망하나니 하물며 세세집이
 사치(奢侈)하고 장구(長久)46하랴 내 말을 (해석 불가)
 일시(一時)라도 잊지 마라 야야 동생아 우리 여러
 형제 언제 또 함께 만나 평일(萬世)같이 즐길꼬
 만세만세(萬世萬世) 우리 양친(養親) 강릉(岡陵)같이 수고하여
 회홀에 기내올 제 우리 다시 모여
 희희낙락(喜喜樂樂) 하여 보세

답기수가 이와

어와 예중 시매(媿妹)1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우리도 각각 친정(親庭) 번화(繁華)하고 흥성(興盛)하기가
 남만큼이나 하지만은 가소롭다 여자 몸이
 남에게 매인 까닭으로 성장할 제종숙질(諸宗叔姪)
 몇몇해를 그러는가 유시(幼時)2로 생각하면
 깊은 심회(心懷) 둘 곳 없네 밝은 달 흰 구름은
 부모형제(父母兄弟) 생각이요 천원기수(泉源淇水) 흐른 물은
 고향산천(故鄉山川) 의회하다 다 같은 여자로서
 그대 둘은 어이하야 창천(蒼天)3에 구름을 보듯
 벽해(碧海)4에 물결같이 이리 보고 저리 보아
 부모슬하(父母膝下) 넘노는 모양이 또 같은 데에서 나올런가
 오등속에 봉황(鳳凰)인가 희희낙락(喜喜樂樂)5하는 모양
 이내 마음 부럽도다 가소롭다 우리들도
 좋은 바람 들어 불면 춘풍(春風) 삼월(三月) 연지(連枝)6같이
 고택(古宅)을 찾아들어 부모동기(父母同氣) 즐긴 후에
 길일양신(吉日良辰)7 가려내어 삼삼오오(三三五五) 짝을 지어
 녹음방초(綠陰芳草) 승화시(昇華時)8에 놀대로 놀아보세
 가소 강남(江南) 이 분내9야 (해석 불가) 어인 말인가
 맥미왕통 너른 천지 이때가 못살리오
 서울이 서울이 성도라도 허양유학 더욱 싫고
 웅찬이 하도라도 제 날 탓이 아닐런가
 명태양반 조롱마소 명태(明太)라 하는 고기
 이름으로 이른다면 (해석 불가) 이 아니며
 월내로 볼 것이면 북해태수 졸을시고 (졸을시고)
 명태양반 졸으시고 한산양반 누구실런고
 허허이말 가소롭다 신기사람 역지하여
 심술(心術)불칙 군지네가 손 안대고 집는 구나
 그대 양반 내놓으소 가사창(歌辭唱) 우습도다

아들자랑 흥일런가 선대세입(先代稅入) 전하기도
 아들이 으뜸이요 후세복록(後世福祿)10 연명(延命)하기도
 아들이 제일이라
 그 아무리 조롱한들
 있던 자정(慈情)11 없을 소냐 그대들 짓이 미워도
 더욱 나는 일러보세 동개동개 내 강아지
 소중하고도 유관하다 음전12암전 이내 돌이
 그 누라서 교태(嬌態)13하랴 매사(每事)가 처연(悽然)14하니
 음전한 것이 자연이요 천성(天性)이 민첩(敏捷)하니
 양전하기 여사(如斯)15로세 음전암전 아니오면
 사람이 말명할까 월녕덩녕 군지씨는
 시기하는 말이로세 조롱할말 전혀 없어
 치산(治産)16 알뜰 조롱인가 야광주(夜光珠)17며 명월주(明月珠)18는
 천하절보(天下絶寶)19 이 아니며 여의주(如意珠)20 연경주는
 값을 준들 구할소냐 백수(白壽)에 무한(無限)하니
 분흥하기 가소로세 아니할까 (해석 불가)
 일가제세(一家濟世) 아니할까 백대지침(百代指針)21 일렀거든
 하물며 우리 양반 한현선생22 후예(後裔)로서
 교남(嶠南)23의 명족(名族)이요 국내(國內)의 대반(大班)이라
 제세(濟世)24인들 아니할까 모두 멸시하니 (해석 불가)
 동향동서(同鄉同壻)25 제멸 후에 동향(同鄉)도 다르거든
 하물며 동서(同壻)일소냐 내 고향(故鄉)이 동서(同壻) 고향(故鄉)
 내 시댁(媿宅)이 동서 시댁(媿宅) 그 정분(情分)26이 어찌하며
 그 친(親)이 오죽할까 여보소 제종시매(諸宗媿妹)27들아
 우리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 보소 여자의 몸이 되었거든
 여자직분(女子職分) 할지어다 어른들 공경(恭敬)하고
 자손(子孫)을 훈계(訓戒)하며 치산(治産)도 하려니와
 방직(紡織)28에 힘을 쓰소 운용(運用)한 행동거지
 유순(柔順)29한 심성(心性)으로 놀이를 한다 해도
 약소(略少)한30 음식(飲食)으로 주종이 (해석 불가) 하고
 조용히 하는 것이 무지(無知)한 부인네들은
 호남자(好男子)31의 본을 받아 공정이회 소회(素懷)할소
 바린지 잡쳐놓고 무력무력 때를 지어
 시끌덤벙 재미면서 여기도 가자 저기도 가자
 우리 마음 몰아가서 두 번 세 번 간청(懇請)하되
 참여할 뜻 없지만은 그럴망정 시매(媿妹)인 까닭으로
 좋은 뜻이 달려가니 상좌(上座)32에 앉히고서
 양간회(胖肝膾)33 개장국34에 대접(待接)은 참으로 실(實)하나

마음에 불가하여 귀미가 절로 없네
 무지막지한 이 분내야 자리한 줄 모르고서
 못할 일은 잘한 대로 면면(面面)을 사랑하며
 철석(鐵石)같은 우리 마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한 놀이 배설(排設)³⁵하고 오늘같이 놀아보자
 지약지약 하겠지만은 어리석은 어느 누구인가
 저 그런 줄 모르고서 봉당지사 행할런가
 우리 잔치 먹으려거든 수다(數多)한 자매(姊妹)놈들
 신행(新行)³⁶하고 도문(到門)할 제 잊지 않고 청하거든
 부조(扶助)³⁷는 많이 하고 제제(濟濟)히³⁸ 돌아오며
 소의 배밭이³⁹ 돼지 창자와 명태 대가리 문어(文魚) 공기
 박박주(薄薄酒)⁴⁰ 한 잔으로 포식(飽食)을 시키리라
 양반(兩班) 시매(媿妹) 대접(待接) 말은 취중(醉中)에 한 말인가
 진정(眞正)으로 농담(弄談)인가 그대들 본 양반(兩班)은
 좋은 줄 알겠지만은 알지 못한 시댁(媿宅) 양반(兩班)
 각각(各各)으로 내어 놀소 증반거창 하당덕아
 호가사(好家舍)⁴¹가 양반(兩班)인가 (해석 불가) 학동덕아
 문필(文筆)⁴²하면 양반(兩班)인가 자궁 좋은 신평덕아
 질사정이 양반(兩班)인가 솜씨 좋은 관동덕아
 나락섬이 양반(兩班)인가 새각시 신안덕아
 신랑 좋으면 양반(兩班)인가 타물색 오산덕아
 충청도(忠淸道)는 다 양반(兩班)인가 심정 좋은 부산집아
 산협(山峽)살이 양반(兩班)보자 알뜰하다 탕건(宕巾)⁴³하니
 양반(兩班)인가 애무세라 양반(兩班)보소 양반결여
 못 살겠다 비위(脾胃) 단단하면 무병(無病)하기 제일(第一)이요
 백년 축수(百年 祝壽) 하였으니 인정(人情)도 고맙도다
 우리들 부유(浮遊)⁴⁴중에 이 가사(歌辭) 기록(記錄)하거늘
 부족한 시매(媿妹)들에게 행사(行事)를 가르치니
 시시(時時)로⁴⁵ 펴서보면 유익(有益)함이 없을 소나
 일후(日後)에 바라기는 괄목상대(刮目相對)⁴⁶가 소원(所願)이로세

[각주]

- 1) 시매(媿妹) : 시누이.
- 2) 유시(幼時) : 어릴 때.
- 46) 장구(長久) : 매우 길고 오래됨.
- 3) 창천(蒼天) : 맑고 푸른 하늘.
- 4) 벽해(碧海) : 질푸른 바다.
- 5) 희희낙락(喜喜樂樂) :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
- 6) 연지(連枝) : 한 뿌리에서 난 이어진 가지라는 뜻, 형제자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7) 길일양신(吉日良辰) : 길일과 양신. 양신은 기후나 경치가 좋은 시절. 가신(佳辰).
- 8) 녹음방초(綠陰芳草) 승화시(昇華時) : 우거진 나무 그늘과 꽃다운 풀이 한창인 때, 즉 여름철 화사한 때를 말함.
- 9) 분내 : 분네의 옛 말. '분네'는 둘 이상의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 10) 후세복록(後世福祿) : '복록'은 타고난 복과 벼슬아치의 녹봉이라는 뜻으로, '후세복록'은 후세에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이르는 말.
- 11) 자정(慈情) : 어머니의 정, 곧 부모의 정.
- 12) 음전 : 말이나 행동이 곱고 우아함. 또는 양전하고 정잠음.
- 13) 교태(嬌態) : 아리따운 자태.
- 14) 처연(悽然) : 애달프고 구슬픔.
- 15) 여사(如斯) : '여사(如斯)하다'는 '이렇다'는 뜻.
- 16) 치산(治産) : 집안 살림살이를 잘 돌보고 다스림.
- 17) 야광주(夜光珠) : 어두운 데서 빛을 내는 구슬.
- 18) 명월주(明月珠) : 밤에 광채를 발하는 구슬.
- 19) 천하절보(天下絶寶) : 세상에 비할 데 없는 보물.
- 20) 여의주(如意珠) : 용의 턱 아래에 있는 영묘한 구슬. 이것을 얻으면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함.
- 21) 백대지침(百代指針) : 백대에 걸쳐 내려오는 집안의 법칙.
- 22) 한현선생 : 한현당(寒暄堂) 김공필(金宏弼). 조선 전기(1454-1504)의 성리학자.
- 23) 교남(嶠南) : 영남.
- 24) 제세(濟世) : 세상을 구제함.
- 25) 동향동서(同鄉同壻) : 고향이 같은 동서.
- 26) 정분(情分) : 정이 넘치는 따뜻한 마음.
- 27) 제종시매(諸宗媿妹) : 집안의 시누이들.
- 28) 방직(紡織) : 실을 뽑고 천을 짜고 물을 들이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29) 유순(柔順) : 성질, 태도, 표정 등이 부드럽고 순함.
- 30) 약소(略少)한 : 적고 변변치 못한.
- 31) 호남자(好男子) : 호남아. 호걸의 품모나 기품이 있고 남성다우며 풍채가 좋은 사나이.
- 32) 상좌(上座) : 윗자리.
- 33) 양간회(胖肝膾) : 소의 양과 간을 날로 잘게 썬 음식.

- 34) 개장국 : 개고기를 여러 가지 양념, 채소와 함께 고아 끓인 국.
- 35) 배설(排設) : 연회나 의식(儀式)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음.
- 36) 신행(新行) : 혼행. 혼인할 때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감.
- 37) 부조(扶助) :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줌.
- 38) 제제(濟濟)히 : 삼가고 조심하여 엄숙히.
- 39) 배밭이 : 소에서 첫째 요추 뼈로부터 마지막 요추 뼈까지를 이름. 치마양지. 소의 양지에 포함되는 부위.
- 40) 박박주(薄薄酒) : 아주 텁텁하고 맛이 좋지 아니한 술.
- 41) 호가사(好家舍) : 화려하게 잘 지은 집.
- 42) 문필(文筆) : 글을 짓거나 글씨를 쓰는 일.
- 43) 탕건(宕巾) :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冠)의 하나. 말총을 잘게 세워서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게 턱이 지도록 뚝. 집 안에서는 그대로 쓰고 외출할 때는 그 위에 갓을 씌.
- 44) 부유(浮遊) : 행선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님.
- 45) 시시(時時)로 : 때때로.
- 46) 괄목상대(刮目相對) :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르는 말.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